☞ 25면에서 계속

모두가 나로부터이니 나부터 알라

던 게 다시 입력을 하니까 앞서의 입력된 것은 없어지고 새로 입력된 대로 나온다, 이런 소립니다.

▲질문자1: 사람은 죽어서 축생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개라든지 고양이 · 닭 · 소, 이와 같은 동물도 태어나기 이전에 과거에 사람으로 한 번씩 되었는지 또 다시 죽어서 앞으로 사람이 되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타 종교에서 이런 것을 질문을 하면 저희들이 그 답변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침 바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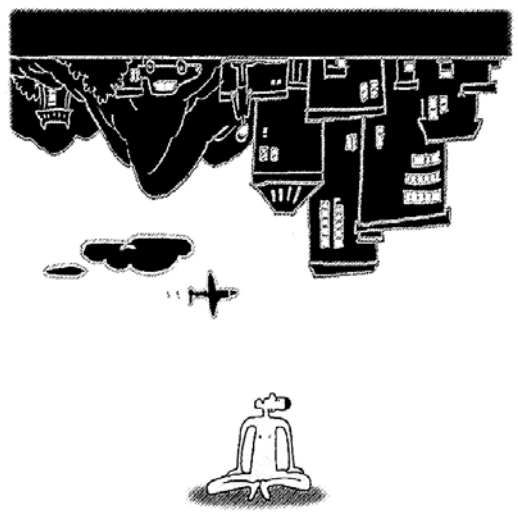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스님: 그렇게 하십시다. (대중 웃음) 허허허. 물이 돌아가듯이 우리 인간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깐 악과 선을 다 거기다 놔라.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게 놓고 언짢은 일이 생기면 '너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거기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모습이 주어지고,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주어지니까, 현실의 미래가 현실로 다시 오니까 그 모습을 가져 왔을 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세생생에 벗어나지 못하는 지옥에 든다는 소리는 뭐냐 하면은 모습을 만약에 독사로 가지고 나왔다 하면, 독사로 태어나면은 독사의 습이 그냥 배서 당최 인도 환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독사로 수없는 나날을 돈다, 개구리로도 되고, 오간지옥이다 한다면 그냥 땅 속에 묻혀서 사는 벌레 있죠? 그러니까 국내 밥내도 못 맡는 그런 곤충이 된다, 이건 오간지옥의 골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순간순간 바뀌집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도 내가 잘하면 잘한 게 오고 못하면 못한 게 금방금방 옵니다. 그건 에누리가 없어요, 우연도 없습니다. 그렇듯이 잠깐잠깐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하는 데서 회사도 망할 수도 있고 회사가 발전할 수도 있는 그 도리가, 우리가 생사의 윤회에 걸림을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영원토록 말입니다.

▲질문자1: : 방편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인지요?

▲스님: 실제입니다! 아니, 실지지 실지 아닌 걸 어떻게… 방편입니까, 그게? 정말 실지입니다! 정말 에누리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도리를 알아보면은 자기 뿌리와 현재 자(子)가, 즉 말하자면 전자에 살던 조상이기 때문에 자기 부(父)와 현재 자기 자(子)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해야만이 그 도리를 알게 돼 있습니다.

▲질문자1: 부처의 구원은 육체가 멸한 후의 그 세계에서만 있는 것이지, 즉 말하자면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부처님의 본원력(本願力)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알기 쉽게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님: 아버지가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살이를 하시죠? 만약에 자식이 공부를 안 하고 가방을 싸 짊어지고 나갔다 한다면 아버지가 억지로 하시겠습니까? 억지로 하다간 부러지죠. 그러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잘 해서 오게끔 만듭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항상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싸 짊어지고 나간 놈이 나가서 행동을 해보고 '아, 이건 막다른 골목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 본인이 알아야 들어오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항상 부러짐이 없이 다시 돌아서 들어오게끔 살리시는 겁니다, 건지시는 겁니다. 그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인연 없는 중생은 어찌 할 바가 없느니라." 한 것이 뭐냐? 가는 거를 잡지말고 오는 거를 마다하지 마라. 가는 거를 그대로 둬야 막다른 골목인 줄 알고 다시 되돌아 올 때가 있다. 그러면 잘못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다. 왜? 잘못하는 사람은 항상 잘못하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잘하는 사람도 항상 잘하기만 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을 다스리면서 잘 이끌어나간다면 이익 하도록, 남과 나가 이익 하도록만 이 끌고 간다면 그대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인연 없는 중생은 어찌 할 바가 없느니라." 한 것은 우리 단시일 내에 아들과 어머니 아버지를 비유해 볼 때 그거 고집이 세고 이렇게 하겠다, 고것뿐이 아니죠. 요거는 요렇게 하겠다고 그냥 악착같이 들 때는 엄마 아빠가 자식을 위해서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 내버져둬야지 어떡합니까, 그거.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보면은 또 싸 짊어지고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구선 들어오게 되는 이치가 많죠. 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고 달아나가는 그 마음 자체, 막 들이댐비고 화내고 그럴 때고 때를 말하며, 인연 없는 중생을 어찌할 바가 없다고 하나 끝없이 돌아가는 거니까 인제는 고렇게 잘못하던 아이들도 잘할 수 있다. 앞으로 그 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이 없으면 할 수 없고 인연에 따라서 또 다시 돌아올 테니까 느긋이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질문자2: 스님 법문을 이곳 포항에서 들게 되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도량이 생겨서 더욱 고맙구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 공부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 저놈들도 자기 씨앗이 있겠지. 내가 옆에서 어떻게 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제가 학교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 잘못된 행동이나 말들을 그대로 따라 하는 걸 보면 저 애들도 자기 씨앗은 있지만 내가 이 학교에서 아이들의 씨앗이 잘 트도록 물과 거름 역할을 하는구나. 근데 아직 나는 많이 부족한데 제대로 된 그 씨앗을 싹트게 할 수 있는 물과 거름이 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그런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스님께서 좀 가르침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스님: 이 불이 여기 세 군데 들어왔지? 우리 여럿이 다 같이 앉았는데 밝게 앉았죠?

▲대중: 예.

▲스님: 그런데 전력은 똑같아요, 학생들이나 선생님이나. 응? 씨앗은 똑같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자가발전소는 똑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불을 켜고 안 켜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달려 있지? 그러니까 마음은 전달이 되지 않으면서 전달이 될 수 있어.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서 '아, 조놈들 저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면 전달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말로 통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씨앗이 커지고 싹이 커지지.

마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모습 가지고 나와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역할은 항상 그 씨에 수분을 주고 흙을 골라주고 해서 그 싹을 틔어주는 거라고, 싹을 틔어주고 고 다음엔 그 싹이 길러지는 거를 말하지. 그러니까 잘해서 좋은 역할을 하도록 해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는 우리가 한 스위치만 이렇게 올려도 불이 전체가 들어와서 밝게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거지. 그러니까 마음의 스위치는 그렇게 모두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천차만별의 만물만생이 전체가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과 선생님이 고것쯤이야 연결이 안 되겠소? 허허허.

▲질문자3: 집사람이 일주일 전만 해도 몸이 아주 안 좋아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에 여기 포항까지 올라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님: 하하하. 그것 보세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돼서 조달이 돼 가지고 안에 생명의 의식들이 작용을 해주는 데는, 병원에서도 전체 연결을 시켜서 하지 않거든요. 어디서 병고가 나왔는지, 병고는 똑같지마는 병고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신계의 50%를 모르기 때문에, 현실 물질계의 50%만 알기 때문에 못 고치는 게 많다 이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중노릇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아주 가난하고 어쩔 수 없는 사람, 나처럼 못난 사람을 볼 때는 너무도 가슴이 찡하고 눈에 눈물이 어려요. 이것이 내가 못난 건지 잘난 건지는 모르지마는 인간 삶이 돌아가는 본분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중노릇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거는 자나깨나 쉴 사이가 없고, 자나깨나 정신력이 항상 그대로라야 되겠죠. 천차만별로 들고나는데 말입니다. 새 물이 들어왔다 헌 물이 또 들어오고, 들어오면 또 새 물로 갈고 이렇게 연방연방 대치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시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받은 사이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도 준 사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 도리를 아신다면 참 영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천만금을 갖다줬어도 나는 한푼도 받은 사이 없습니다. 이거를 비유해서 말하자면, 가게 물건 사러 갔을 때 돈 갖다 준 예 있습니까? 물건을 가져왔는데 물건 사러 갔으면 물건 사 왔으니까 돈 준 사이가 없죠? 그리고 또 그쪽에서는 돈 받은 사이가 없죠. 준 사이도 없고 받은 사이도 없어요. 요런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느 조사께서 말입니다. 누가 천도를 시키러 오니까 재비를 가져온 걸 가지고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방을 못 얻어서 거리로 나앉아서 모두 옹기종기 있는 것을 보고 그거를 쥐 가지고 방을 얻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물건 사러 갔다가 못 사고 그냥 왔는데 아, 천도를 안 시켜 주느냐고 자꾸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도를 안 시켜줬다고 생각을 하면은 도로 돈 가져가라 한 거죠. 나도 그래 본 예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하하하.

오늘도 그런 뜻에서 한마음으로 이렇게 이룩하셨으니 여러분의 그 정성과 결단이 아즈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처음에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룬 그 분에게 참 감사를 드리고요. 내가 감사할 건 없지만 말이에요. (합장하시며) 하하하.

또 질문할 분 없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여래가 되셔서, 하하하, 질문하실 분도 없으신가 봅니다. 하여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린 거를 참작하셔서 병고도 애고도 붙을 자리가 없다, 내가 한 게 없다, 그렇게 수십 억의 모습과 생명과 의식이 있고, 혼자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거기서 한 거니까 거기서 다 알아서 하라고 다 맡기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지난 호 길을 묻는 이에게는 질문과 대행스님의 답변이 실렸으나 편집상의 실수로 법형제법회 안내문이 게재되었기에 정정합니다.

※위 법문은 1993년 11월 28일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개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승 복 법 복 안 내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항상 처음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1. **모직혼방**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 ₩140,000 동방, 바지 : ₩160,000 두루막 : ₩140,000
2. **면 100%** 조각무늬 무직	적삼, 바지 : ₩130,000 동방, 바지 : ₩150,000 두루막 : ₩130,000
3. **누 비** (면솜 100%)	적삼, 바지 : ₩220,000 동방, 바지 : ₩240,000 두루막 : ₩200,000
4. **누 비** (혼방)	적삼, 바지 : ₩170,000 동방, 바지 : ₩190,000 두루막 : ₩170,000
5. **법 복** (회색, 밤색)	쪼끼, 바지 : ₩60,000 ~ ₩65,000
6. **장 삼** (모직)	₩200,000 ~ ₩250,000

※ 가사 주문받습니다 ※ ● 찾아오시는길 :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3번 출구 앞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 름 섬 유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대리점모집)

萬里四柱특강

- 변만리 선생 직강 및 약력
日刊 社會日報 주필, 月刊 陰陽과 韓方 社長
社會團體 韓國陰陽研究會長
현대 삼성 대우 롯데 선경 두산 동부 삼미 등
국내외 은행 및 400여처에서 동양철학과 건강관리 강좌

만리사주의 좋은점

시중의 중국사주는 10년을 공부해도 미완성이고, 어렵기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주의 기본인 오행과 상생 상극을 글자대로 풀이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사주의 오행과 상생 상극, 격국과 신살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진리와 상생 위주로 사주와 운세를 종횡 무진으로 분석 판단하였습니다.

사주 공부가 어려우십니까? 만리사주를 배워보십시오.
40년 강의 경력과 노하우를 초보자도 알기 쉽고,
흥미진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주는 매우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학문입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배워나간다면, 결코 어려운 학문은 아닙니다.

중요 목차 및 내용

- 육신
  - 인물, 인격, 환경, 운명을 판단한다
- 왕쇠강약
- 부귀빈천의 사주
- 육친관계 보는법
- 궁합 보는 법
- 택일 하는 법
- 적성 직업 보는 법
- 인생의 대황로 대운 보는 법
- 12운성과 성격 보는 법
- 일년신수를 척척 보는 법
- 운명의 격동기 보는 법
- 당면문제 감정법
  - 주택문제, 진학과 고시문제, 기억문제, 재판과 형사문제, 결혼과 이혼문제 외 다수

교재(5권) + 강의 테이프(총 60개) = 85만원
스님 및 포교사 할인판매 (만세력 프로그램 50% 할인 판매 함)
문 의 : **016-460-2378** (담당자 직통)
상세한 안내서와 견본테이프 무료 우송함
판매처 : 도서출판 한국음양연구원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져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않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 장삼, 가사, 비단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통간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